

- 주요 뉴스: 미국 9월 주택착공, 전월비 감소, 주택경기 회복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
 -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, 금리인하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
 - 중국 3/4분기 GDP, 전분기 대비 둔화. 다만 생산·소비지표 개선은 긍정적
 - 일본 물가상승률, 4월 이후 처음으로 둔화. BOJ 정책 경로 영향은 제한적
 - 국제금융시장: 美 기술주 실적 호조, 中 경기부양책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증가
 주가 상승[+0.4%], 달러화 약세[-0.4%], 금리 하락[-1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넷플릭스 등 기술주 매수세로 사상 최고가 마감
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 반등, 금리인하 등으로 0.2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 증가에 따른 위안화 상승 등으로 하락
 유로화 가치는 0.3% 상승, 엔화 가치는 0.5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상승세 이후 조정 국면 진입 등으로 하락
 독일은 ECB 금리인하 영향 등으로 3bp 하락
- ※ 뉴욕 1M NDF 증가 1367.4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69.6원, 0.02% 상승). 한국 CDS 보합

		10/18일	10/17일	전일대비			10/18일	10/1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864.7	5,841.5	+0.40%	국채 금리 10y	미국	4.08%	4.09%	-1bp
	유럽	524.99	523.91	+0.21%		독일	2.18%	2.21%	-3bp
	중국	3,261.6	3,169.4	+2.91%		영국	4.06%	4.09%	-3bp
	일본	38,982	38,911	+0.18%	CDS 5y	한국	33bp	33bp	+0bp
	한국	2,593.8	2,609.3	-0.59%		중국	63bp	63bp	-0bp
	달러지수	103.46	103.83	-0.35%	위험 지표	EMBI+	-	381	-
환율	유로화	1.0867	1.0831	+0.33%		VIX	18.03	19.11	-5.65%
	엔화	149.53	150.21	+0.45%		WTI유	69.22	70.67	-2.05%
	위안화	7.1023	7.1229	+0.29%	원자재	구리	438.45	432.5	1.38%
	원화	1,369.3	1,372.7	+0.25%		금	2,721.5	2,692.7	1.07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9월 주택착공, 전월비 감소, 주택경기 회복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

- 9월 미국 주택착공건수는 135.4만건(연환산)으로 전월(136.1만건) 대비 0.5% 감소(예상치 135만건). 단독주택 건설이 103만 채(2.7%) 증가했으나 다세대 주택 건설이 9.4% 감소한 것에 기인. 건설허가는 2.9% 감소한 143만건을 기록하여 예상치(146만건) 하회
- 주택 건설업체들이 보유한 신규 주택 재고는 16년래 최대치 수준인 등 높은 모기지 금리로 금년 주택시장 경기가 지속적으로 부진을 보이는 가운데, 주택건설은 3분기 GDP에 가장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
- 모기지 금리가 고점 대비 하락하면서 건설업체의 주택 경기 회복 기대가 강화되고 있으나 최근 장기금리 재상승 등으로 주택시장 회복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, 금리인하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

-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연준이 2% 물가목표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, 제약적인 금리수준을 충분히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정제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중립금리 복귀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
- 보스틱 총재는 9월 0.5%p를 인하한 금리결정은 연준이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고, 금년 추가로 1회의 0.25%p 인하 이후 '25년말 3~3.5% 수준으로 중립금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

■ 중국 3/4분기 GDP, 전분기 대비 둔화. 다만 생산·소비지표 개선은 긍정적

- 중국의 3/4분기 GDP는 전년동기비 4.6% 성장하여 예상(4.5%)을 상회하였으나 전분기(4.7%) 대비 둔화. 소비 및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. 다만 산업생산(4.5→5.4%) 및 소매판매(2.1→3.2%) 지표는 개선되면서 국가통계국은 4분기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

■ 일본 물가상승률, 4월 이후 처음으로 둔화. BOJ 정책 경로 영향은 제한적

- 일본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(신선식품 제외)은 전년 대비 2.4% 상승하며 시장 예상(2.3%)을 소폭 상회했으나 전월(2.8%) 대비 둔화. 전기/가스요금 정부 보조금이 물가상승세 둔화에 기여했으나, 임금 상승 및 엔화 약세 등으로 기초적인 물가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. BOJ 통화정책 영향은 제한적일 소지
- 한편 일본 최대 노동조합 연합인 렌고는 '25년 춘투 연례임금협상에서 5% 이상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. 실현시 임금-소비 선순환에 기여하며 일본은행의 정책 정상화에 기여할 전망이다, 최근 인플레이션을 둔화로 기업들의 인상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

■ ECB 전문가 조사, 성장 및 물가전망 하향. 비관적인 경기 전망 강화

- ECB가 전문 예측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기 조사에 따르면 유로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은 '25년 2%→1.9%로 하향되었으며, '24년은 2.4%, '26년은 1.9%로 유지. 근원 물가상승률 전망은 '24년 2.8%로 지난 조사(2.7%) 대비 상향되었으며 '25년 2.2%, '26년 2%로 유지
- 유로존 성장률을 '24년 0.7%로 전망하였으나, '25년 전망은 1.3%에서 1.2%로 하향 조정. 응답자들은 유로존의 침체된 성장 동력에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으며, 소비 회복은 '25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지난 조사 대비 비관적인 전망을 표출

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통화정책 완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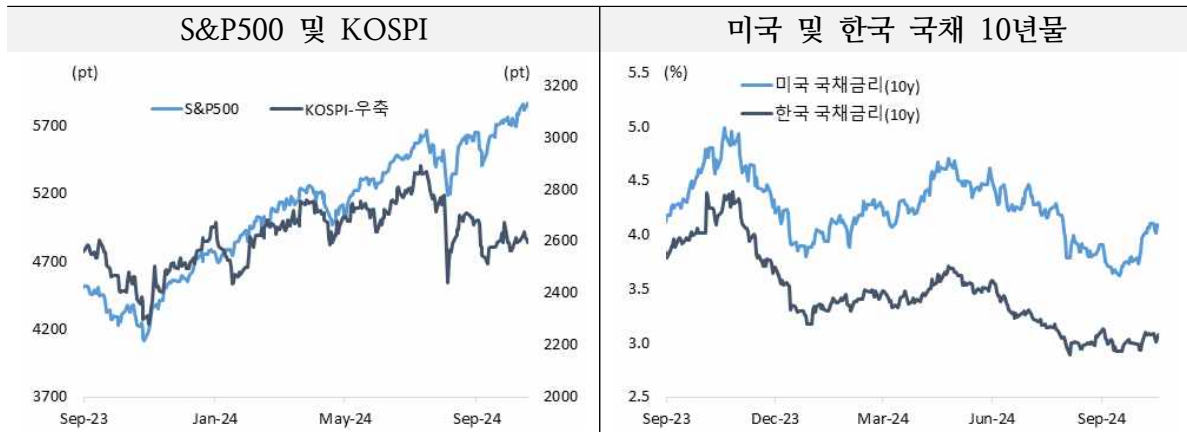
- 빌르루아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금번 ECB 금리인하 결정을 평가하면서,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물가목표 밑으로 하락할 위험이 목표를 상회할 위험만큼 커졌다고 언급하고, 통화정책의 제약도를 계속 완화해나가야 한다고 발언. 필요시 0.25%p 보다 큰 폭의 인하도 가능함을 시사

주요 경제지표

■ 다음 주 주요 경제 이벤트(10/21~25일, 현지시각 기준)

- 캐나다 중앙은행(BoC) 금리결정(23일),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(25일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6, E-mail yijung@kcif.or.kr